

## 이광수 소설에 나타나는 사제관계의 윤리성 - 『사랑』을 중심으로

박 성 애\*

### 차 례

- |                                   |                      |
|-----------------------------------|----------------------|
| 1. 서론                             | 3. 타자윤리적 관점에서 바라본 교육 |
| 2. 『사랑』에 나타나는 주체와 타자의<br>욕망 추구 방식 | 주체의 윤리<br>4. 결론      |

### 국문초록

이광수는 소설쓰기를 통해 계몽을 실천하고자 하였던 작가이다. 그의 소설 속 인물들은 자주 계몽의 주체와 대상으로서 교사와 제자의 관계(사제관계)를 맺는다. 본고의 목적은 『사랑』을 중심으로 이광수 소설에 나타나는 주체와 대상의 관계, 즉 인물들의 사제관계에서 발생하는 욕망의 양상을 살피고, 주체와 타자의 나타남에 대해 고찰하여, 그 윤리적 의미를 타자윤리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에 있다. 『사랑』에서 안빈은 개인으로서 완벽한 윤리를 구현하는 인물로, 타자들을 교육의 대상으로 여기고 가르친다. 그러나 완벽한 안빈의 모습은 그에게 교육받은 인물들의 자발적 희생에 의해서만 유지될 수 있다. 곧 교육을 매개로 하는 주체와

\* 서울시립대 강사

타자의 관계(사제관계)에서 주체인 안빈의 욕망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그의 욕망을 욕망하는 인물들에 의해 지켜지는 것이다. 이러한 타자들의 희생을 통해 『사랑』에서 안빈의 완벽함은 지켜질 수 있었으나, 순옥, 인원, 옥남 등 타자적 인물들은 안빈의 욕망을 욕망함으로써 그와 동일화 되고, 결국 자신의 개성과 ‘물질성’을 상실하게 된다.

『사랑』의 이러한 결말은 비록 교육주체가 그 자체로 완벽하게 윤리적인 인물이라 하더라도, 타자윤리의 실천 없이는 타자의 소멸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 즉, 교육을 실천하는 주체가 완전함에 가깝다하더라도, 타자(교육대상)가 주체에게 완전한 “외재성의 존재”라는 것을 망각한다면, 주체가 속한 세계에서 타자(교육대상)는 사라지고, 주체만이 홀로 남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안빈이 교육주체로서 완전한 윤리를 이루려하면 할수록, 주변 인물들은 안빈 속으로 소멸되고, 복제된 안빈의 모습으로만 살아가게 된다. 이는 곧 『사랑』의 내적 윤리에 타자윤리가 부재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광수는 현실세계에서 존경받는 교사였고, 그의 독자들은 교육의 대상이었다. 따라서 『사랑』의 교육주체와 대상의 관계는 현실세계에서도 흡사하게 반복될 수 있다. 그러나 당시의 현실에서 작가는 또한 절대주체인 일본에 대해 타자였기에, 『사랑』의 논리대로 타자의 소멸이 정당화된다면, 일본에 대해 작가 스스로 자신을 주장하지 않음도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교육주체가 타자를 소멸시키지 않는 주체이자, 교육의 대상에 대해 동일화될 것을 요구하지 않는 주체로서 윤리적인 주체가 되려면, 즉 주체가 타자윤리를 지킬 수 있으려면, 완전한 교육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미숙하더라도 스스로 회의하는 주체여야 한다. 자신의 열정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끝없는 회의가 사라진다면, 그 교육주체의 완전함은 결국 타자인 교육 대상들의 연쇄적 소멸을 낳고 주체 스스로에게는 열정 대신 피로를 안길 것이기 때문이다.

주제어 : 이광수, 사랑, 타자윤리, 윤리성, 회의, 교육주체, 교육대상, 사제  
관계

## 1. 서론

이광수는 소설쓰기를 통해 계몽을 꿈꾸었던 작가이다. 그의 소설에서 인물들은 자주 계몽의 주체와 대상의 관계를 맺는다. 즉, 인물들은 가르치는 역할과 가르침을 받는 역할을 나누어 맡는 경우가 많다. 각 작품에서 인물들의 관계는 동료, 가족, 연인 등으로 나타나지만, 그들은 이면에서 사제관계로 부를 수 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이는 『무정』에서 시작하여 그의 작품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sup>1)</sup>

1917년 『무정』을 시작으로,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행해온 ‘소설쓰기를 통한 계몽의 기획’은 『사랑』에 이르러 그 성격이 분명하게 드러난다.<sup>2)</sup> 『사랑』은 사제관계로 구성된 인물들의 사랑과 교육에 관한 서사로, 이광수가 교육이라는 매개를 통해 어떠한 사제관계를 이상적으로 삼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텍스트이다. 또한 『사랑』은 당시 대중들에게 큰 호응을 받은 텍스트이기에 작품 내의 사제관계는 작품 외부에서도 작가-대중독자 사이의 사제관계로 확대되기도 한다.<sup>3)</sup> 혹은 이광수에 대한 대중의 신망이 이 작품 속 인물들의 관계를 독자와 작가의 관계로 읽도록 했다고도 볼 수 있다. 더욱이 『사랑』의 중심인물인 안빈은 이광수와 매우 흡사하다. 따라서 『사랑』의 독자들은 자연스럽게 안빈에게서 이광

1) 이광수 작품들에 나타나는 사제관계의 양상에 대해서는 유혜성의 논문(유혜성, 「이광수 소설에 나타난 사제관계의 상상력」, 동국대학교 석사논문, 2001)을 참고할 수 있다.

2) 『사랑』은 1938년에 출간되었다. 본고에서는 『사랑』(이광수, 하서, 2001)에서 본문을 인용한다.

3) 허연실, 「1930년대 대중소설과 대중적 전략」, 『현대소설연구』28, 한국현대소설학회, 2005, 179쪽 참조.

수를 떠올리고, 이 텍스트의 언설을 가르침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다.<sup>4)</sup>

이렇게 텍스트 내적, 외적으로 사제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사랑』에서, 주체의 언설은 강한 영향력을 갖는다. 계몽의 실천 속에서 주체는 대상에 대하여 지식이라는 빛을 가진 자로 설정되며 그 지식은 권력이 되기 때문이다.<sup>5)</sup> 이는 곧 교육을 매개로하는 주체와 타자의 관계 속에서 구현되는 것이므로, 계몽이나 교육의 실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체가 타자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그리고 타자의 현현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타자윤리’이다.<sup>6)</sup> 이렇게 타자윤리는 타자에 대한 주체의

- 
- 4) 『사랑』의 두 중심인물인 안빈과 순옥은 외면적으로는 의사와 간호사의 관계이다. 그러나 순옥이 안빈의 병원에 간호사로 들어온 동기는 안빈의 글을 오랜 시간 사모한 결과이며, 안빈의 글들을 통해 순옥은 삶의 방향을 잡아간다. 이후로도 안빈의 가르침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그 가르침을 순옥은 전적으로 받아들인다. 즉, 안빈과의 관계가 시작되었을 때 순옥은 이미 심적으로 안빈의 제자가 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순옥뿐 아니라, 작품 속에 나타나는 대부분의 인물들은 안빈과 교사와 제자라는 이름으로 관계 맺지는 않지만 안빈의 가르침 아래에 있다는 점에서 사제관계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 5) 주지하듯이, 근대는 계몽주의와 함께 도래했다. 계몽이란 지식의 빛을 소유한 계몽의 주체가 아직 어두운 상태에 있는 계몽의 대상을 교화하고 깨우치는 것을 긍정하는 이념이다. 즉, 계몽은 지식을 가진 자와 지식을 갖지 못한 자의 구분을 통해 계몽의 주체를 교육의 주체로 만든다. 따라서 근대 이후의 교육에서 교육의 주체와 대상은 분리되고 교육주체의 지식은 교육대상에게 일방적으로 전달된다. 즉, 근대적 사제관계에서 교육주체는 교육의 대상보다 높은 위치에서 권력을 가지며, 교육의 대상을 타자화 한다. 주체에게 교육의 대상은 결핍되고 보완되어야 할 존재로 인식되며, 주체는 그들에게 자신과 같아질 것을 요구한다. 현재까지도 교육의 주체와 교육의 대상이 맺는 관계는 수평적이기 보다 수직적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에는 일방성과 동일성이 내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근대교육이 갖는 교육자와 교육대상의 관계가 결국 교육을 매개로 한 주체와 타자의 관계를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육의 주체와 대상의 주체-타자의 관계는 『사랑』의 인물들에서도 흡사한 형태로 나타난다.
- 6) “윤리학은 개별적 인간이 성공 내지 실패와 관련하여 자기 자신과 맺는 관계의 이론이 아니다. 레비나스에 따르면 윤리학은 정의의 고려 하에 타인과의 만남에 대한 가르침이다”(베른하르트 타우렉, 변순용 역, 『레비나스』, 인간사랑, 2004, 180쪽). 즉, 타자윤리란 “타인과의 만남에 대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기본적으로

인식과 태도를 윤리의 문제로 보는 것으로, 주체가 타자를 주체에 대하여 “완전한 초월과 외재성”<sup>7)</sup>으로 인식하도록 유도한다. 즉, 타자윤리에 대한 고찰은, 작품 내적으로는 중심인물(교육의 주체)이 교육대상 속하는 인물에 대해 갖는 윤리, 작품의 외부에서는 작가의 독자에 대한 윤리, 그리고 작가의 공간에서는 외부에 존재하는 강력한 주체가 작가를 비롯한 타자적 존재에 대해 보이는 윤리를 분석하는 일까지 확장될 수 있다.

따라서 『사랑』의 작품 내적 타자윤리에 대한 고찰은 작품이 놓여있는 시기와 작가의 상황, 이후 그의 행적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선행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 논의되었듯이, 『사랑』의 인물들은 당시 일본의 국가담론을 수용하고 있고, 왜곡된 정치성을 보여준다.<sup>8)</sup> 이러

---

로 주체와 타자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고 사유되는 것으로, 주체 개인의 윤리성과는 다르다. 주체가 그 자체로 완벽하게 윤리적인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타자의 드러남을 막고 있다면 강력한 주체의 존재 방식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다만, 이렇게 윤리를 바라보고자 할 때 기존의 윤리에 대한 개념, 즉, 자기 자신의 행위에 대해 갖는 스스로의 의식으로서의 윤리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타자를 전제하는 윤리를 본고에서는 타자윤리라고 구별하여 부른다. 이는 레비나스의 윤리학을 일컫는 철학 용어이기도 한데, 그는 “타인과의 만남에 대한 가르침”을 윤리학이라 보고 있으므로, 타자와의 관계를 전제하는 윤리를 ‘타자윤리’로 구별하여 볼 수 있다.

7) 강영안, 『타인의 얼굴-레비나스의 철학』, 문학과지성사, 2005, 36쪽.

레비나스는 타자를 주체의 시선으로 이해하고 파악하려는 시도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다. 그는 “타자는 나에게 대해 완전한 초월과 외재성이다”라고 말하면서 타자를 주체가 “완전히 파악할 수 없는 무한성”으로 설정한다.

8) 김경미는 『사랑』에서 “위대한 사랑은 범인류적 사랑, ‘적’과 ‘나’가 없는 성인의 사랑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곧 “황민화 담론의 내적 논리로 기능”(김경미, 『이광수 연애소설의 서사전략과 민족담론 - <재생>과 <사랑>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57, 현대문학이론학회, 2012, 20쪽)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정혜영은 “안빈이 의미하는 참된 부부상, 참된 사랑, 참된 삶의 자세 등 모든 것이 ‘조국’이라는 한 가지의 의미로 수렴”되고, “<사랑>의 지고지순한 ‘사랑’은 정치성을 내포”(정혜영, 『1930년대 “연애소설”과 사랑의 존재방식 -이광수 <사랑>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47, 한국현대소설학회, 2011, 344쪽)한다고 분석하면서 “사랑이야말로 가장 내밀한 방식으로 작성된 이광수의 친일 전향서”(345쪽)라고 진단한다. 이러한 기존의 연구는 모두 『사랑』과 텍스트 외적 이광수의 행보

한 분석은 모두 일본이라는 주체에 대해 타자로서의 작가가 어떻게 주체의 문법을 내면화하고 받아들이는가를 고찰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이러한 논의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내적 형태와 외적 상황의 연관성을 긍정한다면, 필연적으로 텍스트 내적 윤리는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기존의 논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본고에서는 『사랑』이 보여주는 인물들의 관계가 어떠한 윤리성을 갖는가, 즉 중심인물의 타자윤리적 성격은 어떠한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중심인물의 타자윤리는 주체와 타자의 관계 속에서 타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구현되며, 타자들의 욕망은 어떻게 발현되는가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sup>9)</sup> 타자를 주체의 지식 속으로 흡수해버릴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로 보고, 그 ‘물질성’에 대해 인정하는가, 아니면 타자가 주체 속으로 편입되는 것을 긍정하는가는 중요 계 쟁어볼 부분이다.<sup>10)</sup> 타자의 물질

가 긴밀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본다.

9) 강현국은 그의 논문(강현국, 「이광수 소설의 인류애 -〈유정〉, 〈사랑〉론」, 『현대소설연구』57, 한국현대소설학회, 2014)에서 『사랑』의 안빈은 “인류애”적 사랑을 추구하며, 순옥은 “고행을 통해 안빈의 이상인 인류애를 증명하는 임무를 완수한다. 욕망의 문제는 그 증명 과정을 교란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철저히 회피되거나 은폐된다”(57쪽)라고 진단한다. 이러한 평가는 안빈의 사랑이 얼마나 주체의 물질성을 담보하지 않고 있는가를 잘 드러내는 것이며, “인류애”와 같은 숭고한 사랑이 욕망을 어떻게 다루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욕망의 발현 양상을 살펴보는 것은 물질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주체의 타자윤리를 탐구해가는 데에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10) 주체가 타자를 자신의 지식 속으로 환원시킬 수 없는 존재로 본다는 것은 결국 타자를 또 하나의 주체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레비나스는 주체는 자기 자신을 짊어져야 하므로 세계와 연관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에 따라 ‘물질성’은 중요한 주체의 특징으로 나타나게 된다. “주체의 물질성은 예컨대 음식과 의복, 주거에 대한 일상적 욕구”(강영안, 앞의 책, 102쪽)로 정신뿐 아니라 신체라는 물질의 성질을 가진 존재로서 한 인간의 특성이다. 따라서 주체의 욕구는 “인간의 타락이 아니라, 끊임없이 위협하는 외부 세계로부터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려는 홀로 선 주체의 존재하려는 노력의 표현”(위의 책, 102쪽)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주체가 타자를 또 하나의 ‘주체’로 인정한다는 것은 그가 가진 물질성과

성은 타자의 욕망이 거세되지 않고, 주체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 때 보존될 수 있다. 그러므로 타자의 욕망이 어떠한 방식으로 드러나는가는 주체의 타자윤리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이 된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고에서는 『사랑』에 나타나는 주체와 대상의 관계, 즉 인물들의 사제관계에서 발생하는 욕망의 양상을 살피고, 주체와 타자의 나타남에 대해 고찰하여, 그 윤리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사랑』에 나타나는 주체와 타자의 욕망 추구 방식

『사랑』의 안빈은 작가의 이상적 자아가 고스란히 투영된 인물이며, 작가의 욕망을 잘 보여주는 인물로, 텍스트 안에서 늘 교사의 자리에 위치한다. 안빈은 작품 속에서 위대한 문학가이며 동시에 과학자(의학자)이고, 가정을 위해 헌신하는 이상적 아버지이며, 불교적 도를 몸과 마음으로 실천하는 성자와 같은 인물로 그려진다. 그러나 안빈의 이러한 성격은 인물 자신의 생각에 의해 작품에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인물이 안빈에 대해 본 것, 들은 것, 느낀 것에 의해 표현된다. 즉, 작가는 안빈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직접 드러내 보여 주지 않고 순옥이나 옥남, 인원 등의 눈과 입을 통해 그려낸다. 그렇기에 안빈은 주변 인물들에 의해 성자라는 옷을 입고 다른 모든 인물들에게 사랑과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작가는 명예와 인격, 그리고 도덕성까지 갖춘 데다 사람들로부터 온전한 존경과 헌신을 받는 완벽한 교사상을 창조한 것이다. 또한 안빈은 그의 주변에 머무는 인물들에게 물질적 지원과 더불어 정신적인 가르침을 전달하며, 심지어는 불특정 다수로 존재하는 안빈 글의 독자에게까지 지속적이고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물이다.

그러나 이러한 안빈의 완벽한 교사 역할은 주변 인물들의 끝없는 희

---

욕망을 인정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생 없이는 유지될 수 없는 것이다. 주변 인물들이 자신의 욕망을 자발적으로 거세하고 안빈의 가르침과 자신의 생각을 일치시킬 때 안빈의 교육자적 위치는 견고하게 지켜질 수 있다. 안빈이 의사가 되고 그의 병원이 안정되는 시기까지는 아내 옥남의 헌신적인 희생이 필요했다. 그녀의 희생은 결국 안빈을 유명인으로 만들지만, 정작 그녀 자신은 죽음에 이르는 폐병을 얻게 된다. 안빈은 폐병환자들이 정신적인 안정을 취하지 못해 병이 깊어진다는 것을 알고 그에 대한 연구를 하지만, 그가 연구에 몰두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옥남의 병을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병이 깊어지게 되는 간접적 원인으로 작용한다.

자기 남편에게 대한 은희의 공격에 대하여 옥남은 용감히 응전한 것을 스스로 만족히 여긴다. 그래서 은희가 쓰는 독한 화살이 한 개도 남편의 몸에 맞지 아니하도록 막아낸 것이 마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싸워 이긴 것만치나 기뻐다.(…) 그러나, 그러나, 그래도 은희의 말을 들으면 옥남은 아니 아프지 못하였다. 왜 그런지 모르게 무엇인지 모르게, 아팠다.(…) 그러면 역시 지나간 3년 동안 순옥에게 대한 질투의 감정이 저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흘러내려온 것도 같았다.<sup>11)</sup>

옥남은 안빈과 순옥의 관계를 헐뜯고 싶어 하는 친구 은희의 방문을 받는다. 그러나 친구의 의도를 알아차린 옥남은 있는 힘껏 안빈과 순옥을 보호한다. 이 정신적인 싸움이 끝나고 옥남은 몸이 아플 정도로 기진맥진하지만, 안빈을 세간의 나쁜 소문으로부터 지켜낸 것에 대해 “마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싸워 이긴 것”처럼 기쁜 일로 여긴다. 옥남에게 안빈은 남편의 존재를 넘어서서 질서와 권위 상징으로 스승과 같은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빈을 지키기 위한 희생은 얼마든지 할 만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또한 안빈은 “아내가 남편의 일을 제일로 알고 인류의 복리를 위해서 우리 몸을 바치는 맛을 아는

11) 이광수, 앞의 책, 112-113쪽.

것”<sup>12)</sup>이라며 아내의 헌신을 정당화한다. 이는 안빈의 성자적 면모와 일치되지 않는 것으로, 스스로에 대한 변명에 가깝다.

그러나 이러한 옥남의 희생적 행위, 즉 첫 눈에 순옥이 안빈의 글을 사모하여 안빈의 병원에 들어오고자 하는 것을 눈치 챘음에도 순옥을 병원에 두고자 우기는 행위나, 안빈과 순옥의 관계를 변호하려 하는 것이 모두 옥남의 욕망이라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는 모두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안빈의 욕망에 속한다. 옥남은 안빈의 욕망을 자신의 욕망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하지만 가끔씩은 “타자의 의견 아래 가려져 있던 진짜 인상을 되찾”<sup>13)</sup>기도 하는데, 그럴 때면 질투가 감정 표면 위로 떠오른다. 옥남은 질투가 생길 때마다, 가짜 욕망, 즉 안빈의 욕망을 욕망하는 것을 통해 진짜 자신의 욕망을 통제하려 노력한다. 이러한 진짜 마음과 가짜 욕망 사이에서 옥남은 몇 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고, 이러한 상태는 옥남의 정신적인 안정을 갉아 들어가, 옥남의 “병은 조금씩 조금씩 더 하여”<sup>14)</sup>가게 된다.

순옥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순옥은 여학교 시절, 안빈의 글을 읽고 그의 사상에 심취하여 안정된 생활을 버리고 안빈 병원의 간호사가 된다. 이러한 순옥의 욕망은 안빈이라는 타인에 의해 불러 일으켜진 것인데, 그녀는 이것이 안빈에 의해 매개된 것임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 어렸을 적부터 독실한 안식교인으로 자라난 순옥은 ‘몽상적’이고 희생적인

12) 위의 책, 47쪽.

13) 르네 지라르, 김치수 역,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 한길사, 2002, 84쪽.

저자는 위의 책에서 일반적으로 한 인물이 느끼는 욕망은 중개자에 의해 중개된 거짓 욕망이라고 설명한다. 욕망은 모델에 의해 불러일으켜진 것인데, 마치 그것이 자기 내부에 있었던 것처럼 착각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상을 향한 돌진은 근본을 파헤쳐보면 중개자를 향한 돌진(51쪽)”이며, “욕망의 발생에, 다시 말해서 주관성의 원천 자체에 언제나 당당하게 자리 잡고 있는 타인”(78쪽)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자신의 욕망을 알아차리기 어렵게 된다. 이렇게 볼 때, ‘숭고한 삶’이라는 욕망은 안빈에 의해 불러 일으켜진 것으로, 옥남이나 순옥의 진실된 욕망이라 보기는 힘들다.

14) 이광수, 앞의 책, 114쪽.

인물이다. 이러한 순옥에게 “성도적인 생활과 감정”, 그리고 “심히 높고 깨끗한 감정을 그린”<sup>15)</sup> 안빈의 작품들은 자신도 그러한 생활을 하고 그러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불러 일으켰다.<sup>16)</sup> 순옥은 이를 위해 안빈의 곁에 머물면서 그의 박사학위 논문을 완성시키는 일에 온전히 자신을 희생한다.

그러나 이러한 순옥의 욕망은 허구적인 것이며, 안빈에 의해 매개된 것이기에 허영과 결혼하여 안빈과 물리적 거리를 두게 되자 곧 희미해진다.

(…) 한 달, 두 달 지나가는 동안에 순옥은 일종의 행복을 아니 느낄 수가 없었다. (…)허영에게 대하여서도 날이 갈수록 그리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허영이가 신문사에서 돌아올 시간이 되면 기다려지고, 대문 소리가 나면 얼른 체경 앞에 몸을 한번 비추어 보고 싶게도 되었다. (…) 순옥은, 제 마음이 안빈에게서 조금씩 떨어져 가는 것을 스스로 변호하였다.<sup>17)</sup> (강조는 인용자)

10년을 넘도록 사모하고 4년이나 병원에 함께 있었음에도 허영과 결혼한 지 두어 달 만에 순옥의 마음은 안빈에게서 멀어지고 새로운 기쁨을 찾는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변화는 그동안 순옥의 열정이 자신의 욕망에 의해 나타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발생한다. 또한 욕망의 “중개자

15) 위의 책, 88쪽.

16) “안빈의 편으로 보면, 자기는 남달리, 심히 깨끗하지 못한 감정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 때문에 도리어 작품 중에 깨끗한 것, 성스러운 것을 애써 그린 것이다. 제 마음의 더러움에 진저리가 나서 창작 생활에서 그 진저리나는 더러움을 벗어나 보려는 노력에 불과하는 것이었다. 안빈이가 성인이 되려고 결심도 하고 애도 쓰는 것은 사실이어니와 또 그와 한 가지로 도저히 금생에서는 더러운 속인을 벗지 못하리라고 자탄하는 것도 사실이다.”(위의 책, 88쪽.) 이처럼 안빈의 작품에 그려진 숭고한 인물들의 모습은 안빈의 욕망을 투영하고 있는 것인데, 이를 보고 순옥은 안빈의 욕망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게 되며, 그를 위해 헌신하게 된다.

17) 위의 책, 334-335쪽.

(안빈)가 가까워질수록 그의 역할은 커지고 대상(안식교의 교리와 안빈의 소설에서 깨닫게 된 성스러운 삶)의 역할은 감소<sup>18)</sup>하게 되는데, 안빈에게서 완전히 떨어져 나온 순옥에게서 안빈을 욕망하던 생각은 자연스럽게 스러지고, 순옥에게 원래 자신이 욕망하던 삶이 더욱 중요하게 다가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순옥의 새로운 행복 앞에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누구보다도 순옥의 행복을 바랬던 인원은 오히려 불쾌한 생각을 갖게 된다.

인원은 혼인한 생활에 불만족한 수심기를 띤 눈물에 젖은 순옥을 예상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와 보니 멀쩡하지 아니하나? 남편과는 정이 들었노라 하고, 내외 정분이 너무 좋기 때문에 홀 시어머니가 샘을 내일 지경이라고까지 하지 아니하나? 얼굴이 좀 수척했을 뿐이지 아주 행복된 외양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인원은 순옥에게 대하여 섭섭한 것 외에 실망과 반감을 아니 느낄 수가 없었다.

‘고것이 사내 맛에 훌쩍 반했어. 얇은 것!’

이런 혐오의 정까지도 발하였다.<sup>19)</sup>

인원은 오히려 육체적인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 순옥에게 역설하던 인물이다. 인원은 누구보다 순옥의 행복을 빌었으며, 안빈에 대한 정신적인 사랑을 위해 순옥이 스스로 희생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열정적인 인물이었다. 그러한 인원이 순옥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혐오”를 느끼는데, 이렇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안빈이 순옥을 잊지 못해 수척해지는데도 순옥은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원의 분노는 결국 안빈의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인원은 “순옥에게 대하여 이렇게 섭섭한 생각을 가져볼수록 안빈의 인격의 높음을 아니 느낄 수가 없<sup>20)</sup>게 되었는데, 이는 인원이 안빈 곁에 머물게 되면서 그의 욕망을

18) 르네 지라르, 앞의 책, 92쪽.

19) 이광수, 앞의 책, 342-343쪽.

20) 위의 책, 343쪽.

욕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인원이 안빈의 아이들을 거두게 된 것도 결과적으로는 순옥과 결혼할 수 없다는 안빈의 생각과 그러한 안빈의 생각을 허영과 결혼함으로써 현실로 만들어버린 순옥 때문에 생겨난 일이다. 교사라는 직책을 버리고 안빈의 가정이 안정되도록 자신을 희생하게 된 것은 친구와의 우정 때문이었으나, 결과적으로 인원은 안빈의 곁에 머물면서 안빈의 욕망을 욕망하는 인물이 된다. 순옥의 욕망이 안빈에 의해 움직이기에 순옥의 욕망을 채워주고자 하는 인원의 욕망도 결국엔 안빈에 의해 움직이게 되는 것이다.<sup>21)</sup>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사랑』은 안빈의 주변에 존재하는 모든 인물들이 그를 위해 희생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안빈의 가르침에 감화된 인물들이 그의 욕망을 자신의 욕망으로 치환하여 받아들임으로써 가능해진다. 그러나 안빈이 ‘크고 높은 정신’으로 불특정 다수를 위한 숭고한 일을 해나갈수록 주변의 인물들은 끊임없이 희생된다. 마치 엄청난 중력으로 주변의 모든 물질과 빛을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같은 구조이다.

이러한 성자와 희생자의 구조는 안빈이 모든 이들의 완벽한 교육자가 되고자 하는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와해될 수 없다. “다른 것을 다 희생해버리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의 앞에서나 석순옥이가 안 선생께 대한 관계만은 청정하나라, 성스러우니라 하도록 하고 싶”<sup>22)</sup>다는 순옥의 희생적 욕망을 거두어들이 수 있는 방법은 이 욕망에 투영된 안빈의 욕망, 즉 존경받는 교육자가 되고자하는 욕망을 거두는 것뿐이다. 또

21) 르네 지라르, 앞의 책, 77쪽.

저자는 “자아에 대한 타인의 힘은 예전보다 더 강하며, 우리는 그 힘이 예전 주인공들에게서처럼 단 하나의 중개자에 국한되지 않았음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인원은 순옥과 안빈이라는 복수의 중개자들인 타인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

22) 이광수, 앞의 책, 217쪽.

한 인원이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자신의 삶을 타인의 아이들을 거두는 희생의 삶으로 바꾸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안빈과 순옥의 결혼뿐이다. 그러나 “석순옥이가 안 선생께 대한 관계만은 청정”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즉 안빈이 순옥에 대해서 완벽한 교사의 위치에 있음을 증명하는 일은 순옥의 자발적 희생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숭고한 정신의 소유자로 존경받는 교육자, 지도자의 역할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안빈의 욕망은 결국 순옥을 고통이 예상되는 결혼 속으로 밀어 넣고 인원의 삶도 구속한다. 또한 순옥과 모든 인물에 대한 안빈의 교육자의식이 철회된다면 아버지 없이 태어난 허섭과 그 모(母)의 삶도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안빈은 끊임없는 희생구조의 중심에 있다.

그러나 안빈은 절대적 교육주체의 위치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의 교육자 노릇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는 안빈을 존경하고 그의 가르침을 체화한 주변 인물들이 자발적으로 희생하기에 그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난관을 헤쳐 나갈 수 있다. 의사가 되기까지 옥남이, 박사가 되기까지는 순옥이, 완전하고 가정적인 아버지상을 연출하는 일에는 인원이 희생한다. 또한 문사로서의 명성에 해가 될 위기를 극복하는 일에는 옥남과 순옥이 번갈아가며 희생하고, 병원 일은 어간호사가 결혼도 하지 않고 도우며, 요양원을 짓는 일에는 영옥이 적극 나서고, 그 자본을 마련하는 것에도 아무런 난관이 없다. 질서와 권위의 상징인 안빈의 교사 노릇은 이처럼 자발적인 것처럼 꾸며진 인물들의 희생 위에 기초하고 있다. 이에 안빈은 자신의 자리에 가만히 머무르기만 하면 부와 명예와 정신적 만족 - 민족을 위해 헌신했다는 - 이 충족되며, 그의 완벽한 윤리성 또한 지켜진다.

이러한 구조에서 벗어나 있는 인물은 허영뿐이다. 허영은 열정적으로 자신의 욕망을 욕망한다. 그는 순옥을 중개자로 하여 순옥의 욕망을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순옥 자체를 욕망하며, 그것을 꾸미지 않고 직접 표현한다. 이러한 허영에 대해 허영의 친구이자 순옥의 오빠인 영옥은 그

를 선량한 인물로 판단하고 매부를 삼아도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한다.<sup>23)</sup> 그러나 허영은 곧 쾌악한 인물로 변하게 되는데, 돈과 애욕에만 눈이 멀어 인간의 도리마저 잇는 모습은 분명 갑작스러운 느낌을 준다. 허영의 이러한 변화는 결국 순옥을 다시 안빈 곁으로 불러내는 역할을 한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인원을 통해 드러난 안빈의 욕망이 충족되는 결과를 낳는다. 이후 순옥이 북간도로 떠나서 허영 모자(母子)를 위해 헌신한 것 또한 안빈의 종교철학을 배워서 모방한 것인데, 이는 안빈이 순옥을 다시 자신의 곁으로 끌어들이는 일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는 행위가 된다.

허영 모자가 죽고 난 후 순옥은 죽는 순간까지 자신을 미워했던 그들의 모습에 이해할 수 없는 답답함을 느낀다. 자발적인 것처럼 보이는 순옥의 희생이 결국은 그녀의 욕망에 의한 것이 아니었기에, 순옥은 허영 모자가 보여준 결말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아마도 허영 모자는 순옥의 희생이 안빈이라는 매개자를 통해 불러일으켜진 가짜 욕망에 의한 것이었음을 직감하고 있었을지 모른다. 다만, 순옥은 진짜 욕망에 대한 무자각 때문에 그들의 미움이 자신에 대한 미움이 아닌 안빈이라는 매개자를 향한 것, 혹은 ‘진짜’가 아닌 ‘가짜 진심’을 향한 것이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사랑』 속 인물들은 사제관계를 형성하며 주체와 타자의 자리를 나누어 맡는다. 그러나 이 작품에는 오직 주체의 욕망만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는데, 타자들은 자발적 희생의 형태로 주체의 욕망을 욕망하고, 주체는 타자들에 대해 스승의 자리에 위치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자신의 욕망을 실현시킨다. 결국 주체는 타자들의 욕망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자신의 욕망을 심어 놓는데, 이 과정에서 타자들

23) 이광수, 앞의 책, 245쪽.

“허영이가 마음은 선량한 사람인데 -모든 선량한 것을 다 모아 놓은 사람인데, 그 재료들이 잘 반죽이 못 되었어, 통일이 못되고.’ (….) 이만큼 선량한 인물이니 까 매부를 삼아도 큰 화단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였다.”

은 자신들의 물질성을 위협받는다. 신체와 정신을 소유한 하나의 주체로서 타자적 인물들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즉 타자적 인물들의 물질성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자신의 욕망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표출하는 과정이 존재해야 한다. 주체의 욕망만이 남게 되는 것은 결국 주체와 타자의 관계 속에서 ‘타자의 소멸’이라는 비윤리적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 3. 타자윤리적 관점에서 바라본 교육주체의 윤리

#### 1) 타자의 소멸로 지켜지는 주체의 윤리

지금까지 『사랑』의 인물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욕망 대신 안빈의 욕망을 실현시켜왔는가를, 인물의 관계를 통해 살펴보았다. 『사랑』의 사제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중심인물, 안빈은 타자들이 자발적으로 욕망을 포기하고 주체어로 귀환하여 동일화 되도록 하였다. 주체로서 안빈의 위치는 이러한 타자들의 욕망을 모두 자신의 것과 동일하게 만드는 것에 의해 지켜진 것이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주체로서 안빈은 지속성을 지니지만 그 외 인물들의 물질성은 거의 대부분 안빈의 숭고한 윤리적 삶 속으로 들어가 사라져버리는 모습을 보인다. 즉, 또 다른 안빈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면서 각 자의 개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sup>24)</sup> 이렇게 인물들의 사라짐은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자신의 욕망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가짜 욕망을 욕망함으로 인해 생겨난 일이다. 그러면, 타자적 인물들의 사라짐에 대해 주체인 안빈은 어떤 윤리적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인가.

24) 권보드레는 “『사랑』은 주체성의 환상이 지배하는 세계”(권보드레, 『저개발의 멜로 저개발의 숭고』, 『상허학보』37, 상허학회, 2013, 310쪽)라고 말한다. 이러한 지적은 안빈을 제외한 타자적 인물들의 사라짐을 설명하는 데에도 적절한 것이라 본다.

『사랑』의 안빈은 윤리적으로 완전한 인물로 묘사된다. 그러한 그가 타자(교육대상)의 주체되지 못함에 윤리적인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는가. 그러나 안빈이라는 한 개인의 인격적 성공에 관한 것으로 윤리를 한정 짓지 않고, 다른 인간과 관계를 맺는 방식으로 고찰한다면, 즉 타자윤리적 관점으로 안빈의 주체됨을 살펴본다면, 그가 타자와의 관계에서 있어 책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근데 말야. 육체를 가진 사람이 같이 육체를 가진 다른 사람을 사랑 하는데 말야, 그렇게 완전히 육체를 떠나서 혼만을 사랑할 수가 있느냐 말이어든. 중들 모양으로 돌로 깎은 부처라면 몰라도, 우리와 같이 육체를 가진 사람, 더구나 이성, 그중에서도 젊은 이성이 되고 보면 말야 그 육체가 늘 먼저 눈에 뜨이지 않느냐 말야?”<sup>25)</sup>

“극히 적은 중생 하나를 위해서라도 도움될 일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큰 복으로 알아서 기쁘게 네 몸뚱이를 내어주어라, 그러지 않았어? 몇 천 만생을 나고 죽고 하더라도 그런 복된 기회를 얻기는 어려운 일이니 라고. 그러니깐 내가 순옥이를 위해서 희생이 된다고 하면 그게 영광 아냐?(...)”<sup>26)</sup>

첫 번째 인용한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인원은 작품 초반 개성적 사고를 하는 적극적인 여성으로 그려진다. 그러던 그녀가 안빈의 곁에서 머물며 교육을 받고나자 본래의 개성과 성격은 사라지고 안빈의 모습과 흡사해진다. 두 번째 인용한 부분도 인원의 언설인데, 이는 첫 번째 것과 달리 안빈의 언설로 읽어도 어색함이 없을 정도이다. 인원은 안빈이라는 주체의 곁에 머물면서 자신의 개성을 소멸시키고 또 하나의 안빈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타자들의 소멸과 함께 『사랑』에는 여러 명의 안빈만이 남는다.

25) 이광수, 앞의 책, 42쪽.

26) 위의 책, 394쪽.

작품 속에서 안빈은 석순옥 등 타자들에 대해 자주 설교를 하는데, 그것은 ‘인연’과 ‘운명’에 대한 것으로 “너를 완전히 죽이고 진리 속에서 살아라”<sup>27)</sup>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여기서 “너”란 인물 개인의 욕망이므로, 이는 곧 타자들에 대해 ‘욕망하는 주체’가 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이다. 안빈은 설교를 통해 타자 스스로가 자신을 소멸시키도록 이끄는 것이며 교육의 주체에 동일화된 타자들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작품 속에서 안빈이 갖는 절대적인 권위는 타자들에게 반론의 여지를 주지 않는다. 또한 안빈의 숭고한 도덕성은 안빈을 더욱 완전무결한 권위자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결함 없는 절대적인 교육 주체에 의해 타자들은 교육 받고, 스스로를 소멸시키는 길을 걷는다.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타자는 주체에 대하여 초월적 존재이자 외재적 존재이다. 그러나 안빈이 지닌 숭고한 윤리성은 오히려 “타자의 소멸”을 부추기는 윤리가 된다는 점에서 『사랑』의 ‘타자윤리’는 문제점을 지닌다.<sup>28)</sup> 타자가 소멸된 공간은 완전한 하나를 이루는 공간이다. 모두가 하나인 것처럼 움직이는 공간이자, 주체의 자기복제 공간인 것이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이광수와 중심인물인 안빈은 무척 흡사하며, 작품 내의 ‘교육 주체-대상’의 관계는 작품 외적으로 ‘작가-독자’의 관계와 닮아 있다. 이러한 점은 시공간적으로 당대적 의미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1930년대 말의 상황에서 이광수는 독자에 대하여 교육의 주체였고, 교육의 대상이었던 독자들의 호응 속에서 『사랑』은 오래도록 향유된다. 그러나 『사랑』의 세계와 달리 당시 독자들의 세계인 조선은 주체적

27) 위의 책, 323쪽.

28) 레비나스는 “지식의 대상은 주체에 의해 흡수되고 이원성은 사라”진다고 말하면서 주체가 타자를 지식의 대상으로 간주할 때 “타자의 소멸”(엠마누엘 레비나스, 강영안 역, 『시간과 타자』, 문예출판사, 2001, 23쪽)에 이르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볼 때 안빈의 욕망을 욕망함으로써 물질성을 잃고, 소멸되어가는 인물들의 모습은 안빈이 지식을 통해 대상(타자)을 흡수하였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으로, 결국 안빈이라는 중심인물의 타자윤리 부재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일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안빈과 달리 이광수는 늘 주체의 자리에 있을 수 없었다. 따라서 『사랑』에 나타나는 교육 대상들의 자기소멸은 이광수의 세계에서는 그 의미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주체를 위한 타자의 소멸이 정당하다면, 식민지 지식인이었던 이광수가 일본에 대한 타자로서 절대주체를 위해 스스로 소멸되는 것도 가능한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타자의 소멸이 정당화되는 순간, 절대적인 주체 하나를 위해 연쇄적 타자의 사라짐도 정당화된다. 절대 주체의 교육에 의해서이든, 아니면 자발적인 교육 대상의 순응에 의해서이든.

## 2) 회의의 열정과 완전성의 피로

자전적 성격과 계몽적 성격이 강한 이광수 소설의 인물들은 자주 자가 자신의 모습을 반영하여 드러낸다. 이는 그의 첫 장편 『무정』에서부터 21년이 지난 후의 『사랑』에 이르기까지 어느 정도 일관된 것이다. 그러나 『무정』과 『사랑』에 나타나는 인물들은 흐른 시간만큼 열정이라는 면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회의’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소설을 이용한 계몽을 시작한 이광수는 『사랑』에 이르면, 교육자로서의 탄탄한 위치를 갖게 된다. 안빈의 모습은 『무정』의 형식이 꿈꾸던 것이다. 『무정』의 형식은 교육에의 열정이 강한 인물로 더 좋은 교육자가 되기 위해 유학을 떠난다. 그의 열정은 그와 함께 교육자로서의 길을 결심한 인물들에게 “소름이 끼치”고, “불길이 번적”하며, “큰 지진이 있어 온 땅이 떨리는 듯”<sup>29)</sup>한 감격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강하다. 그러나 당시 자신과 흡사한 인물인 형식을 바라보는 젊은 이광수의 모습은 자못 회의적이다.

“생물학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새 문명을 건설하겠다고 자담하는 그네의 신세도 불쌍하고 그네를 믿는 시대도 불쌍하다”<sup>30)</sup>

29) 이광수, 『무정』, 문학과지성사, 2005, 463쪽.

『무정』의 서술자는 작가와 그 거리가 무척 가깝다. 그런데, 결말 부분에 이르러 서술자의 목소리라기보다는 작가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위와 같은 목소리가 난데없이 등장하여 형식과 그 일행을 논평한다. 인용한 부분을 보면 이광수가 형식이라는 인물이 갖는 열정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그 행위의 주체와 결과 자체에는 회의적임을 알 수 있다. 이광수가 보기에 청년들은 미흡하고 완전하지 않으며, 그들을 교육의 주체로 삼아야 하는 조선의 상황도 “불쌍”하리만큼 불안정하다. 그러나 이 불안전은 열정과 만나, 미래를 열어 놓는다.

이로부터 약 20여년이 흐른 후, 『사랑』에서 안빈은 교육 주체로서 완전하고, 그의 세계도 결함이 없다. 그러나 『사랑』의 결말에는 열정이 빠져있으며, 미래를 향해 열려있지도 못한 느낌을 준다.

“(…) 우리가 시시각각으로 고마운 절을 드릴 분은 우리 조국님이시고 조국님이 아니시면 어떻게 우리가 질서 있는 사회에서 살기는 하며 옳은 일은 하겠나. (…)

내가 이제 나이 육십인데, 그 동안 하도 바빠서 반성하고 수양할 기회가 없었고 또 몸도 피곤하단 말야. 인제는 아이들도 다 자라고, 또 요양원도 기초가 잡히고 했으니 나는 한참 더 공부를 할라네. 석군, 이군, 순옥이, 또 협이, 수선이, 인원이, 또 윤이도 한다니까 다들 이 요양원을 맡아서 해 가기로 하라구.”<sup>31)</sup>

위의 인용문은 『사랑』의 결말 부분이다. 안빈은 마지막이라는 듯이 이러한 말을 남기는데, 그 핵심은 신과 조국, 남에게 감사하라는 것과 자신은 이제 떠나고 싶다는 것이다. 그러나 안빈의 마지막 말에서는 열정이 느껴지지 않는다. 『사랑』에서 안빈은 주로 설교자의 모습을 보여 왔다. 불교철학과 사랑에 대해 길게 논하던 그는 그러나 마지막 장면에 이르러서는 별다른 말이 없다. 그에게서는 오히려 피로감 같은 것이 느껴진

30) 위의 책, 466쪽.

31) 이광수, 『사랑』, 558-559쪽.

다. 더구나 이것은 순옥이 안빈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열정적으로 고백하고 난 직후에 보이는 반응이기에 더욱 부자연스럽다. 『무정』의 형식이 마지막 장면에서 길고 힘 있는 설교를 해냄으로써 주변 인물들을 그의 열정 속으로 편입시켰던 것과 대조적이다. 이미 『사랑』의 인물들이 모두 안빈의 정체성을 갖게 된 상황에서 긴 설교는 필요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교육주체만 남은 상황에서 더 이상 교육할 내용은 없기 때문이다. 타자가 모두 주체와 같아짐으로 인해, 타자의 개성뿐 아니라 주체의 개성도 함께 사라진다. 더불어 완벽한 주체의 공간에서 주체의 열정은 사라지는 것이다.

작품의 결말에서 안빈은 떠나고자 한다. 그러나 『무정』의 형식이 분명한 목적과 목적지를 가지고 있었던데 비해 안빈의 떠남에는 그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 다만, 지식을 얻기 위한 “공부”를 더 하겠다고 말한다. 타자의 물질성이 모두 사라지고, 타자가 오로지 안빈의 또 다른 모습들로만 존재하는 상황에서 주체는 다시 지식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완전한 주체의 공간을 이룬 시점에서 다시 주체가 되기 위한 공부는 『무정』의 형식이 하고자 했던 공부와 달리 열정을 만들어내기 힘들다. 완전한 주체가 존재하는 공간은 타자가 사라진 공간이며, 동시에 주체에게도 열정적인 공간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홀로 완전하고, 세계의 유일한 주체였던 안빈의 존재방식은 나르시시즘적인 성격을 띠며, 결국 스스로를 현실의 세계에서 소외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sup>32)</sup>

32) 나르시시스트의 심리적, 사회적 성격을 문학과 연계하여 분석한 하우저의 논의(아놀드 하우저, 김진욱 역, 『예술과 소외』, 종로서적, 1982)를 살펴보면, 『사랑』의 안빈이 보이는 피로감은 이해가 가능한 부분이다. 하우저는 나르시시스트와 소외의 관계를 분석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아 속에 견고히 들어박혀, 은신한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그 은신처로부터 나올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현실 대신에 그는 자신을 중심으로 한 허구를 만들어 내어, 그 허구의 세계 속을 돌아다닌다.”(154쪽) 이러한 분석은 안빈의 세계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본다. 안빈의 완전한 주체됨은 결국 자신의 세계를 견고히 만든 것이 되고, 이는 허구의 세계에 가까운 고요하고 완전한 세계인 것이다. 또한 나르시시

『무정』의 형식은 자신의 열정을 마음껏 드러낸다. 그 열정은 형식과 거리를 두고 그를 바라보는 이광수의 회의와 함께 작품 속에 배치되어 있다. 이에 반해 『사랑』의 안빈은 교육주체로서 완전한 윤리를 획득하고 있으나, 그의 완전함은 열정을 감소시키고 피로감마저 느끼게 한다. 이처럼, 교육주체가 타자를 소멸시키지 않는 주체이자, 교육의 대상에 대해 동일화될 것을 요구하지 않는 주체로서 윤리적인 주체가 되려면, 완전한 교육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미숙하더라도 스스로 회의하는 주체여야 한다. 자신의 교육에 대한 열정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끝없는 회의가 사라진다면, 그 교육주체의 완전함은 결국 타자인 교육 대상들의 연쇄적 소멸을 낳고, 스스로의 열정까지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 대상에 대한 교육주체의 윤리는 홀로 완전한 윤리가 아니라, 끝없이 회의하고 움직이는, 닫혀있지 않은 관계의 윤리로서 ‘타자윤리’이어야 할 것이다.

#### 4. 결론

이광수는 소설쓰기를 통해 계몽을 실천하고자 하였던 작가이다. 그의 소설 속 인물들은 자주 계몽의 주체와 대상으로서 교사와 제자의 관계(사제관계)를 맺는다. 『사랑』의 인물들의 관계도 이러한데, 개인으로서 완벽한 윤리를 구현하는 안빈은 주변의 인물들을 교육의 대상으로 여기고 가르침을 전한다. 그러나 완벽한 안빈의 모습은 그에게 교육받은 인

---

스트는 “타인이 자신을 존경해 주기만을 바”라고, 결국은 “이 목적을 위해, 그에게는 타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나르시시스트의 자아상은 패배의 대상”이다. 곧 그는 “점차 사람들 사이에서 은퇴하고, 또 마침내 타인으로부터 소외”(155쪽)된다. 따라서 안빈과 같은 완전한 윤리성을 가장한 나르시시즘은 열정의 소멸과 함께 소외의 느낌, 그리고 그로부터 파생된 피로감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물들의 자발적 희생에 의해서만 유지될 수 있다. 곧 교육을 매개로 하는 주체와 타자의 관계(사제관계)에서 주체인 안빈의 욕망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그의 욕망을 욕망하는 인물들에 의해 지켜지는 것이다. 이러한 타자들의 희생을 통해 『사랑』에서 안빈의 완벽함은 지켜질 수 있었으나, 순옥, 인원, 옥남 등 타자적 인물들은 안빈의 욕망을 욕망함으로써 그와 동일화 되고, 결국 자신의 ‘물질성’을 상실하게 된다.

『사랑』의 이러한 결말은 교육주체가 완전함에 가깝다하더라도, 교육의 대상으로서 타자가 주체에게 완전한 외재성의 존재라는 것을 망각한다면, 교육주체가 속한 세계에서 타자(교육대상)는 사라지고, 주체만이 홀로 남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안빈이 교육주체로서 완전한 윤리를 이루려하면 할수록, 주변 인물들은 안빈 속으로 소멸되고, 복제된 안빈의 모습으로만 살아가게 된다.

이광수는 현실세계에서 존경받는 교사였고, 그의 독자들은 교육의 대상이었다. 따라서 『사랑』의 교육주체와 대상의 관계는 현실세계에서도 흡사하게 반복될 수 있다. 그러나 당시의 현실에서 작가는 또한 절대주체인 일본에 대해 타자였기에, 『사랑』의 논리대로 타자의 소멸이 정당화된다면, 일본에 대해 작가 스스로 자신을 주장하지 않음도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교육주체가 타자를 소멸시키지 않는 주체이자, 교육의 대상에 대해 동일화될 것을 요구하지 않는 주체로서 윤리적인 주체가 되려면, 완전한 교육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미숙하더라도 스스로 회의하는 주체여야 한다. 자신의 열정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끝없는 회의가 사라진다면, 그 교육주체의 완전함은 결국 타자인 교육 대상들의 연쇄적 소멸을 낳고 주체 스스로에게는 열정 대신 피로를 안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고는 『사랑』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기에, 그 이전의 작품들에 대해 거의 다루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광수의 소설쓰기 과정에 나

타나는 윤리성의 변화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여전히 남아 있는데, 이는 이후의 연구를 기약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이광수, 『사랑』, 하서, 2001.

이광수, 『무정』, 문학과지성사, 2005.

강영안, 『타인의 얼굴-레비나스의 철학』, 문학과지성사, 2005.

강현국, 「이광수 소설의 인류애 -<유정>, <사랑>론」, 『현대소설연구』  
57, 한국현대소설학회, 2014, 213-238쪽.

권보드레, 「저개발의 멜로 저개발의 송고」, 『상허학보』37, 상허학회,  
2013, 279-320쪽.

김경미, 「이광수 연애소설의 서사전략과 민족담론 — <재생>과 <사랑>  
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57, 현대문학이론학회, 2012,  
5-30쪽.

유혜성, 「이광수 소설에 나타난 사제관계의 상상력」, 동국대학교 석사논  
문, 2001.

정혜영, 「1930년대 “연애소설”과 사랑의 존재방식 -이광수 <사랑>을 중  
심으로-」, 『현대소설연구』47, 한국현대소설학회, 2011, 323-350  
쪽.

허연실, 「1930년대 대중소설과 대중적 전략」, 『현대소설연구』28, 한국현  
대소설학회, 2005, 165-182쪽.

르네 지라르, 김치수 역,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 한길사, 2002.

베른하우트 타우랙, 변순용 역, 『레비나스』, 인간사랑, 2004.

아놀드 하우저, 김진욱 역, 『예술과 소외』, 종로서적, 1982.

엠마누엘 레비나스, 강영안 역, 『시간과 타자』, 문예출판사, 2001.

<Abstract>

## The ethicality of relations of teacher and pupil in Lee Kwang-su's novels

Park, Seong-ae

Lee Kwang-su was a writer who tried to practice an enlightenment by writing. Characters are structured by relations of teacher(an educational subject) and pupil(a n educational object) through an enlightenment in his works. In this way, An Bin is a perfect educational subject morally and other characters become educational objects voluntary in Sarang. But An Bin can maintains his perfection only by the sacrifice of his pupils. An bin's pupils, educational objects take An Bin's desire to their things and they desire his desire. Therefore An Bin's perfection can be keep by the others in Sarang and educational objects become identified with An Bin. It means the others lose their individuality by An Bin's teaching. It shows that even though the educational subject is a perfect being morally, the others are disappear without 'the Ethic of the Other'. Because the other is an external existence against the subject.

Lee Kwang-su was an educational subject and the readers were educational objects in the real world. Therefore relations between an educational subject and object of Sarang are repeated in Korea under the rule of Japanese imperialism. If disappearance of the other could be right, it could be also justified that Lee Kwang-su was disappeared

because he was the other of the absolute subject, Japan.

When the subject doubts himself, the educational subject can be an ethic subject. If they do not doubt their desire, the perfection of the subject makes the others disappeared.

Key Words : Lee Kwang-su, Sarang, the Ethic of the Other, the ethicality, doubt, an educational subject, an educational object, the relation of teacher and pupil

■ 논문접수 : 2015년 6월 30일

■ 심사완료 : 2015년 8월 16일

■ 게재확정 : 2015년 8월 20일